

동화 심사평*

박상률

· <예심·본심> 박상률

<예선통과작>

1. 그림자가 된 상철이
2. 학교 가는 길
3. 할머니와 감자꽃
4.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가을
5. 빼앗긴 오월

단편 소설에선 등장인물의 행동을 주로 묘사한 뒤 종국엔 이야기의 반전을 꾀한다. 반전을 통해 독자의 의표를 찌르기도 한다. 장편 소설의 경우엔 단편의 미덕을 취하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인물 간의 관계에도 초점을 맞춘다. 이 점, 동화도 마찬가지다. 5·18문학상의 동화는 단편을 공모한다. 그러므로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 하였는지,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를 눈여겨보았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작품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작품은 장편에 해당할 이야기를 단편에 우겨 넣은 경우도 있고, 아예 장편을 보내기도 했다. 1980년의 5월이 있는 지 30년이 훌쩍 지났다. 그래서 그런지 응모 작품들 가운데 많은 경우 주제와 관련성이 적은 게 아쉬웠다. 입담도 좋고 상상력도 좋았지만 5·18동화라 하기엔 어딘지 석연치 않은 작품들이 많았다. 이야기 가운데 1980년 봄이나 5·18이 들어가기만 한다고 해서 5·18 동화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림자가 된 상철이」는 1980년 5월에 진압군이었던 왕배 할아버지와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상철이 할머니 이야기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때 상황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들의 손주에 이르러서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재현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술만 마시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사람’ 이라며 허세를 부리는 왕배 할아버지.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링거주사 같은 걸 놓아주다가 문제가 된 상철이 할머니. 왕배와 상철이 사이의 ‘어린 주먹’ 세계가 작가의 입담에 실려 잘 그려져 있다. 특히 반전 부분이 어색하지 않다.

「학교 가는 길」은 1980년 당시 초등학교(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외삼촌이 머리를 다쳐 지금도 똥오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 그런 삼촌이 혼자 휠체어를 몰고 학교에 다녀오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학교는 특수학교다. 외삼촌이 외할머니 도움 없이 자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외할머니가 언제까지나 삼촌 뒷바라지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할머니와 감자꽃」은 글씨도 씨앗이라는 발상이 좋다. ‘할머니는 감자씨를 쓰고 아빠의 누나는 글씨를 심고….’. 아빠의 누나는 그해 5월 사라져 여직 생사조차 확인 되지 않는다. 감자씨를 심는 할머니처럼 아빠의 누나는 그 모양을 시로 썼다. 그러나 시는 완성되지 않는다. ‘나’는 마침내 시의 마지막 구절을 쓴다. 그렇게 5·18은 세대를 이어 간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가을」은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작은 시골학교에 부임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다. 구조 자체에 약간 상투성이 보이지만 어린 시절로 돌아간 선생님이 광주에서 전학 온 ‘아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스레 ‘광주’를 알게 된 이야기다.

「빠앗긴 오월」은 이야기를 엮어가는 입담도 좋고 5월의 전모도 드러난다. 그러나 단편에 담지 않고 장편에 담은 이야기라 아쉬움이 컸다. 커다란 국그릇에 담긴 이야기와 간장 종지에 담긴 이야기는 다르다. 예심을 통과한 5편 가운데 「그림자가 된 상철이」를 당선작으로 뽑았다. ‘광주’가 세대를 내려가며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점을 높이 샀다.

<선정작> 그림자가 된 상철이 / 장광균 작